

2028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 저탄소 전환금융도 도입

금융위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정부 2035 NDC 제시... K-GX 추진
스코프3, 2031년 적용 방안 제시
10년간 790조 규모 정책금융 공급



이석원 금융위원장. /뉴시스

기업의 탄소 대응 역량이 공식 투자 판단 기준으로 편입된다.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의 탄소배출량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가 2028년부터 의무화되면서다. 2029년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이석원 금융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제4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를 주재하고 'ESG 공시 제도화' 및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5 NDC를 제시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을 추진하고 있다"

며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 등 ESG 요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자율공시였던 ESG 공시를 의무공시로 전환해 기업의 기후 리스크와 대응 수준을 투자자가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

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ESG 공시는 기업의 탄소배출량과 사회적 기여, 지배구조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다. 투자자 보호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장치로 2023년부터 의무화 방안이 추진됐지만 시행 시점이 올해 이후로 미뤄졌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확정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맞물린다. 정부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정책금융이 고위험·장기 자본이 필요한 기후금융에 선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산업계의 투자 부담을 줄이고,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해 기후금융이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2029년에는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기업 가치사슬 전반의 간접배출을 포함하는 스코프3는 관련 산정 인프라를 갖춘 뒤 2031년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협력업체 배출량까지 공시 범위에 포함되면서 기업들은 공급망 단위의 탄소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스코프3가 본격 적용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은 물론 화학·정유 등 에너지 집약 산업 전반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기후금융 공급을 대폭 늘려 2035 NDC 달성의 재원 기반도 강화한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총 79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방침으로, 기존 계획(2024~2030년 420조원) 대비 기간과 규모를 모두 확대했다. 이 중 50% 이상은 지방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 투입한다.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도 도입한다.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활동 중심의 녹색금융과 달리, 철강·화학·시멘트 등 탄소다배

출 산업의 설비 효율화, 연료 전환 등 탄소감축 활동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은 EU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기반 전환금융과, 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기반 전환금융을 포괄하도록 설계됐다.

기후금융 정보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정부는 기후금융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금융 웹포털'을 구축해 현장에서 녹색·전환금융 해당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 포트폴리오의 탄소성적을 관리할 수 있는 '금융배출량 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기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융이 K-GX의 중추적 조력자로서 우리 경제와 산업의 탄소중립과 녹색 신산업 성장을 견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함께, 약속한다는 건
누군가의 하루를 지켜주고 싶은 소망입니다.

안전을 위한 다짐이 되고,
건강을 살피는 따뜻한 관심이 되며,
사랑을 전하는 진심입니다.

우리의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내일이 되고,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되기를.

DB손해보험은 언제나 그 곁에서
함께, 약속합니다.

함께, 약속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유튜브 구독하기로 함께 약속!"



CJ그룹, 3년간 1.3만명 채용

신입사원 공채 지속... 고용창출 앞장 "콘텐츠·푸드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

CJ그룹이 향후 3년간 1만300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CJ는 지난해 신규 입사자 중 34세 이하 청년 비중이 71%에 이를 정도로 청년 고용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CJ그룹은 코로나19 이후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대기업들이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는 분위기에서도 신입사원 공개채용(공채) 제도를 유지해왔다. 올해 그룹 신입 공채 목표도 전년보다 20%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전체 신규 인력 가운데 청년 채용 비중은 최근 3년 연속 70%를 넘었다. CJ 올리브영, CJ ENM 등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뷰티·콘텐츠를 비롯해 글로벌 K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결과다.

또한, CJ그룹은 올해 지역 생산·물류 거점 확대를 포함한 국내 투자액을 지난해보다 45% 늘린 1조5000억 원으로 확충, 3년간 4조2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투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다.

이재현 회장은 평소 "기업은 젊은이들의 꿈이기가 되어 한다"는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CJ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젊은 이들의 꿈을 실현할 토대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IT 및 인공지능 중심의 채용 시장에서 인문계 취업준비생들에게 폭넓은 인재 등용문을 마련,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청년 취업난 해소에 힘써왔다.

CJ그룹 관계자는 "단순히 숫자(채용 규모)를 넘어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다방면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하고잡이' 인재들을 양성하고, 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2월 기업심리지수 상승... 경기개선 기대감

경제심리지수 98.8... 41개월만에 최고

2월 기업경기조사에서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가 94.2로 전월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2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다. 다음달 전망 CBSI는 97.6으로 6.6p 올라 기업들의 단기 경기 기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CBSI가 97.1로 전

월보다 0.4p 하락했다. 비제조업 CBSI는 92.2로 전월 대비 0.5p 상승해 한 달 만에 반등했다.

기업과 소비자 심리를 합성한 경제심리지수(ESI)는 98.8로 전월 대비 4.8p 상승했다. 이는 2022년 9월(99.0) 이후 최고치다. ESI 순환변동치도 97.2로 0.8p 상승했다.

다만 전산업 CBSI(94.2)와 ESI(98.8) 모두 기준선인 100을 밑돌고 있어, 기업과 민간 경제주체의 심리가 장기간 수준에는 못 미치는 상태다.

/김주형 기자 gh471@